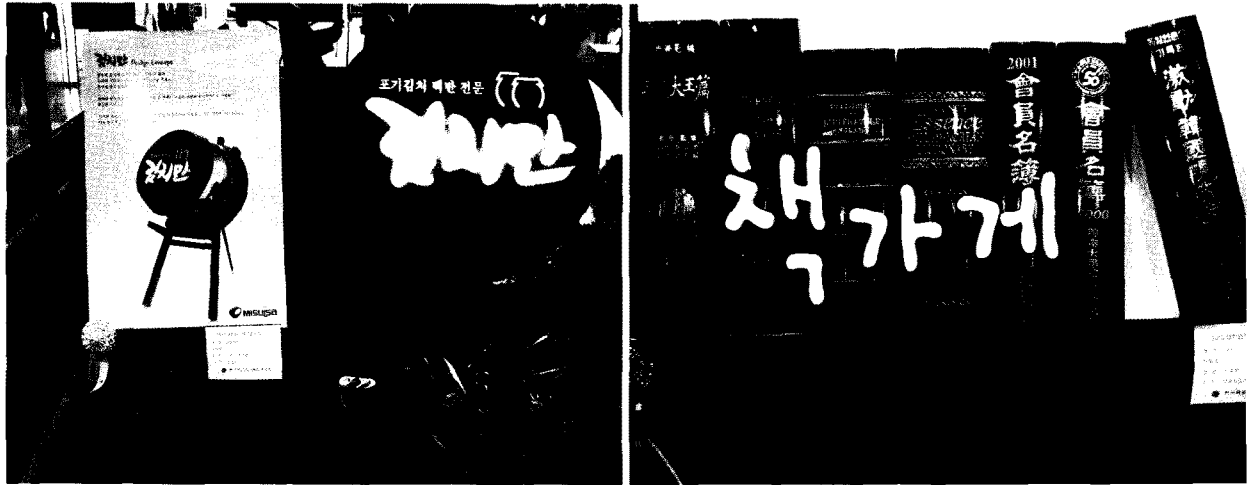


제18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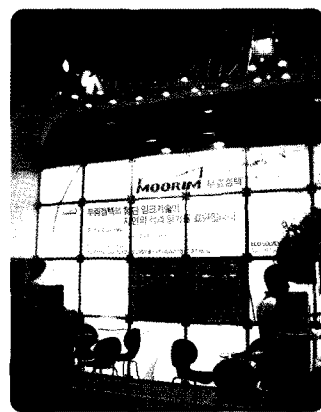
사인 산업의 최신 트렌드 선보여



제18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10·코사인전)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옥외광고협회와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의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20년에 가까운 연륜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인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의 150여개 제조사 및 바이어가 참가하였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코사인 2010'에는 사인 산업의 주력 기업들과 아울러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선 중소기업체들이 다양하게 참가해 장비 전시 및 기술전시로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모든 시각 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었다. 디지털프린팅, LED, 미디어 및 잉크, 제작시스템, 후가공 및 장비, 디자인 및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디자인 등의 광범위한 사인 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디지털 프린팅, 채널밴딩기, 조각기, 친환경 아이템의 대표주자인 LED가 사인에 적용되는 과정과 현황, 그 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한편, 부대행사로 열린 2010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에서 이준석(미술사 대표)씨의 '김치만'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경북 경주 안치우(대륙사 대표)씨의 비천이, 우수상에는 대구 장수진(예일광고 대표)씨의 커피나무 외 6개가 선정됐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45점의 작품이 특별전시관에 진열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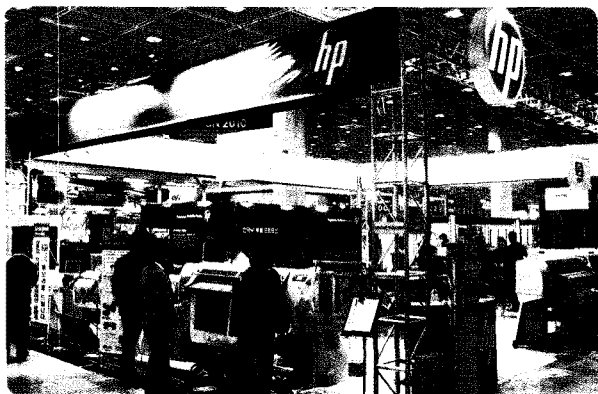
무림컴텍, 고해상도 출력 실현하는 잉크 공급



지난 2001년 설립된 무림의 계열사인 무림컴텍(대표 안인수)은 이번 전시회에 실사용 잉크 및 사무용 잉크와 각종 소모품을 출품했다. 무림컴텍의 슈퍼비주얼리티는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출력물을 제공하며 나노기술은 헤드의 막힘없는 출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보장한다. 무림의 초순수정화기술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지원한다고 무림컴텍의 관계자는 밝혔다. 이외에도 무림컴텍은 원색에 가까운 색감을 표현할 뿐 아니라 최상의 인쇄 품질을 구현하는 레이저 프린트 소모품도 선보여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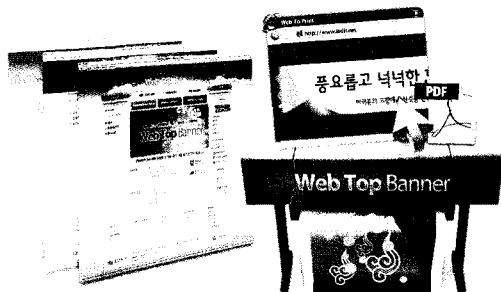
한국HP, 고품질 출력시장 겨냥한 디자인젯 L25500

한국HP(대표 스티븐 길)은 HP디자인젯 Z6100의 후속 모델로 컬러 표현력이 한층 강화된 'HP디자인젯 Z6200'을 신장비로 선보였다. 고품질 출력시장에서 더욱 큰 기대를 모으며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60인치 보급형 라텍스 잉크 장비 'HP디자인젯 L25500'도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수성 및 솔벤트 장비의 교체수요를 대거 끌어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스 한쪽에는 라텍스 잉크 활용 생활소품과 사이텍스 FB500/LX800 등 대형 UV경화 프린터의 다양한 출력 샘플을 전시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도솔루션, 한 번에 다 해결하는 <웹 탑 배너>



성도솔루션(대표 김상래)은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편집, 주문관리 및 웹하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Web Top Banner' (웹 탑 배너)를 직접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웹 탑 배너는 인터넷 영업에 필요한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주문자와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인쇄전문 주문 시스템이다. 인터넷만으로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으며 웹 하드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입할 필요가 없고 관리가 간편한 이미지하드 등을 갖추고 있다. 초기에 도입할 경우, 가격 부담이 없는 렌탈방식을 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성도솔루션의 관계자는 디자인 템플릿 300컷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웹 탑 배너 서버에 서체를 내장하여 편집의 편의성이 높고 서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적인 기능이 없어도 제품, 디자인 선택부터 주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안검토 및 커뮤니케이션 인쇄주문에 주안점을 둔 홈페이지는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젠, UV-LED램프 채용한 프린트



디젠(대표 이길현)은 UV-LED램프를 채용한 54인치 프린트&컷 UV프린터 'LEC-540', C, M, Y, K, Lc, Lm 6색에 메탈릭 실버와 화이트 잉크를 탑재한 프린트&컷 기능의 64인치 솔벤트 프린터 '버사캠 VS-300/640' 도 새로운 로랜드 장비로 선을 보였다. 샘플 제작과 UV출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 제품군에 대해 디젠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디젠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사출력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초고속 디지털 날염기 '텔레이오스 (Teleios) GT'와 윈스톱으로 인라인화해 대량의 현수막을 손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현수막 자동화 대량생산 시스템 '디지털 현수막 공장'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리히상사, 차별화된 합성지·페트배너



주리히상사(대표 이수창)는 나투라미디어의 공식 대리점으로서 합성지, 페트배너, 켈 등 일반 제품과 함께 나투라 미디어만의 차별화된 고급 제품을 출품했다. XY배너 및 롤업배너용으로 활용 가능한 '화이트 롤업 배너', 기존의 일반 PVC켈 및 백릿 필름에 비해서 뛰어난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PVC필름 'MP PVC켈 유광', 'MP백릿 유광' 등 차별화된 소재가 관심을 끌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